봉은사 '디지털 플랫폼' 구축한다

더존비즈온과 개발 · 업무협약
행정 · 미디어 등 통합 운영해
각종 데이터 중앙 관리 · 활용
클라우드로 비대면 업무 가능
"사찰선 첫 디지털 트랜스폼"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봉은사는 8월 18일 대표ICT기업인 더존비즈온과 '봉은사 앱 및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장영욱 봉은사 종무실장, 봉은사 홍보국장 효신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김용우 더존ICT그룹회장, 송호철 더존비즈온플랫폼사업부문 대표. 협약에 따라 더존비즈온 측은 실사와 함께 2년에 결쳐 플랫폼을 개발한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가 사찰 최초로 각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서울 봉은사는 8월 18일 서울 더존을지타워에서 더존비즈온과 '봉은사 앱 및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기획국장 효신 스님, 장영욱 종무실장 등 봉은사 대중과 김용우 더존ICT그룹회장,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부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더존비즈온은 봉은사 측과 TF팀을 구성, 실사 이후 2년 내 단계별로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조계종의 경우 1999년 종무행정 프로그램 가람지기를 개발한 이후 봉은사의 '실크로드' 행정프로그램을 개선, 2012년 가람지기2로 보급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사진과 영상 등 사찰 데이터 증가와 활용에 대한 다양한 수요로 기존 종무행정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장영욱 봉은사 종무실장은 "봉은사 신도들의 사찰 운영 참여로 축적되는 데이터가 증가해 매년 서버 증설도 일종의 화두가 되고 있었다. 새 플랫폼으로 데이터에 대한 보존, 관리가 용이해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용우 더존ICT그룹회장은 "이번 플랫폼은 이른바 '사찰의 디지털 트랜스폼'으로 칭할 수 있다. 플랫폼 구축은 더존비즈온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프로젝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플랫폼이 구축되면 기존 봉은사 서버에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들은 더존비즈온이 만든 중앙서버 저장되고 전문관리가 이뤄진다. 이를 활용한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도 보다 쉬워질 예정이다. 더존비즈온 측은 봉은사 전용 앱과 클라우드(Cloud, 데이터를 중앙컴퓨터에 저장하고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을 통해 원격 행정과 비대면 업무도 지원한다. 기능 개발에 따라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문자발송과 카카오톡 등 SNS소식 전달, 신도소통 서비스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우 회장은 "사찰을 보면 IT가 사실상 없다시피 하여 안타까움이 있었다. 종무행정 뿐만 아니라 교육과 같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디지털화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새 플랫폼에는 스님과 일반 종무원들이 신경 쓰기 힘든 세무, 법률, 행정문제를 해결하는 기능도 탑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업 실무를 진행할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코로나로 인하여 일반기업들도 디지털 플랫폼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3차에 나누어 각 6개월씩 단계별, 분야별로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찰의 첫 디지털 플랫폼 도입을 통해 팬더믹 상황 극복과 혁신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아날로그에 머물던 불교가 디지털화되는 기회다. 봉은사 불사 중 가장 크고 의미있는 불사가 될 것"이라며 "향후 팀을 잘 구성하여 사찰 환경에 맞는 플랫폼이 완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눔의집 "민관조사 왜곡… 정정 요청"

법인 이사회 18일 입장문 발표
"운영 미비 통감"… 혁신 약속

최근 경기도가 나눔의집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나눔의집 법인 이사회가 운영 미비에 대한 참회와 함께 운영혁신 및 대대적인 쇄신을 약속하고 나섰다. 다만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의 민관합동조사결과의 왜곡된 부분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사실관계에 대해 해명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8월 18일 이사진 일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운영미숙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대대적인 운영혁신을 단행해 사회 각계의 애정과 관심이 사장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나눔의집은 근래 지적된 운영 미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한 동시에, 지난 29년간 운영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변화와 이로 인해 불가피했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토로도 전했다.

나눔의집 이사진은 "지난 29년 동안 공심과 신념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셔왔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조차 없었던 쉽지 않은 여건에서 오직 할머니들을 위하는 마음과 역사적 사명감이 나눔의집을 존재하게 한 원동력이었다"며 "세월이 흘러 사회복지법인으로 면모를 갖췄지만, 생소한 법인운영과정에서 회계 등 행정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운영상 미숙한 점이 발생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와 경기도가 그동안 정기적으로 나눔의 집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정이나 운영상 미숙했던 점을 미리 지적하고 지도했다면 작금의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민관합동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일부 해명했다. 민관합동조사는 경기도가 특별지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했으나, 기존 점검결과를 답습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 밖에 추가 지적사항으로 드러난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기록물 방치, 후원금 사용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나눔의집은 우선적으로 후원금 사용과 관련해 구조적인 고충을 드러냈다. 할머니 1인당 매년 8000만원이 지급되며 여성가족부 의료비 지원 등 명목으로 비급여 의료비 지원 카드까지 제공되는 상황에서, 후원금을 입소 할머니 6명을 위해 전폭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나눔의집은 "이 같은 사실을 여성가족부와 지자체는 물론, 조사단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나눔의집은 "나눔의집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광주시 감사에서 지적된 회계 등 행정상 부적절한 사항의 대부분은 관련 법규에 대한 무지 등에서 초래된 것이고 횡령 등 심각한 범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기에 모두 적법한 상태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며 "법인 운영 과정에서 미숙함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참회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나눔의집은 "책임을 통감하고 운영혁신을 단행해 반드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지희 기자

혜암 대종사 삶 · 사상 조명 나선다

9월, 탄신 100주년 맞아 법회 · 학술대회 개최

"공부하다 죽어라"며 수행 정진을 강조했던 조계종 前 종정 혜암 대종사(1920~2001, 사진)의 생애와 사상, 수행관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법보종찰 해인사와 (사)혜암선사문화진흥회, 혜암대종사문도회는 혜암 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대종사의 삶과 사상을 선양하는 법회와 국제학술대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혜암 대종사를 선양하기 위한 첫 행사는 9월 5~6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열리는 '탄신 10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다. '혜암 선사의 선사상과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주제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혜암 대종사의 사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세계화 방안을 살피는 학술논문들이 발표된다.

학술대회 첫째 날에는 행사준비위원장 여연 스님이 기조발제를 진행하며 김용표 동국대 불교대학 명예교수가 '종교문명 전환기의 불교의 세계화 담론과 한국불교의 과제'를, 박진영 미국 아메리칸대 종교학과 교수가 '혜암 선사의 선사상과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발표한다.

둘째 날에는 혜암 대종사의 선사상과 수행의 특징을 살펴보고 사상적 배경을 분석하는 논문들이 대거 발표된다.

9월 19일에는 혜암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가 해인사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봉행된다. 명종 5타로 시작되는 이날 법회에서는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이 의식을 집전하며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혜암 대종사를 기리는 법어를 내릴 예정이다. 또한 〈공부하다 죽어라 2〉 〈혜암선사의 삶과 사상〉 책을 부처님께 봉정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해인사 성보박물관에서는 혜암 스님의 유품을 전시하는 특별전이 열릴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재가불교 선도 '삼보회', 새 도약 준비"

유억근 삼보회 이사장, 법회서
'정혜결사 찾아서' 주제로 강의

"한국불교사에 한 획을 그은 보조국사 지눌의 권수정혜결사는 정법으로의 복귀와 수행불교의 재건, 민간불교와 대중불교의 건설 운동이었다. 그로부터 700여년이 지난 1964년, 비구 · 대처간 분규의 혼돈 속에서 탄생한 삼보학회 역시 대중불교와 정법구현을 위한 지성불교의 산실이었다."

유억근 삼보회 이사장<사진>이 8월 16일 서울 삼보정사에서 '재가자 중심의 불교수행과 권수정혜결사' 주제 강의를 통해 지눌 스님의 권수정혜결사의 의미를 토대로, 재가불교단체인 삼보회 출범의 역사와 가치를 되짚었다. 특히 이를 통해 창립 60년을 앞둔 삼보회의 재도약을 추진하고 그 면모를 일신함으로써, 과거 삼보회의 위상과 정체성을 계승 · 회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눈길을 끈다.

유억근 이사장은 이날 강의를 통해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권수정혜결사 이후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근대까지 이어진 한국불교의 암흑기를 순차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삼보학회는 당시 사업가이자 재가불자로 불교현대화를 이끌었던 덕산 이한상 거사의 원력으로 1964년 봉은사에서 출범했다"며 "이후 대중불교와 정법구현을 이끄는 지성불교의 산실로 성장했고 불법홍포의 거목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유 이사장은 과거 삼보회의 드높았던 뜻과 위상을 되살리기 위해, 출범 당시 초심과 원력을 현재에 다시 펼치기 위한 노력에 임할 것을 재차 다짐했다. 특히 "삼보가 '고목(古木)'이 아닌 '거목(巨木)'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과거의 명성에만 머물지 말고 새로운 기운으로 도약할 때"라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Cheontae Order of Korean Buddhism Art Award

제 5 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접 수 2020.10.07(수) ~ 08(목)
전 시 2020.11.25(수) ~ 30(월)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주관 제5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운영위원회
시행 대한불교천태종 천태문화사업단
후원 금강신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

대한불교천태종은 다양한 예술분야의 저변확대를 통한
문화융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5회 천태예술공모대전을 개최합니다.
불화(전통·현대), 조각, 공예, 민화 총 4개 분야에서
참신한 예술가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부문 및 부문별 공모 개요

부 문	규 격	출품료	출품제한	자 격	유 의 사 항
불화 (전통·현대)	200호 미만 가로×세로 400cm 이하	1점당 50,000원	1인 3점	제한 없음	표구된 완성작만 접수
조 각	높이 250cm 미만 가로×세로 300cm 이하 무게 500kg 미만				조립한 완성품으로 제출
공 예	높이 200cm 미만 가로×세로 400cm 이하				
민 화	200호 미만 가로×세로 400cm 이하				액자 제작 후 접수
※ 전 분야 대학 재학생 출품료 30,000원 (학생증 사본 필수)					※ 작품제작과정 담은 세부 작품설명 필요 ※ 액자 유리 금지

시상 내역

시 상	수상인원	시상내역	비고
대 상	1명	상금 2,000만원 상장 상패	종단 귀속
최우수상	4명	상금 각 300만원 상장 상패	
우수상	4명	상금 각 100만원 상장 상패	
장려상	4명	상금 각 30만원 상장 상패	
특선	약간명	상장 및 상품	
입선	약간명	상장	
특별상		상장 및 기념패	

문의 천태예술공모대전 사무국 02-547-4746

제출서류
- 출품원서(소정양식) 1부
- 작품설명서(소정양식) 1부
- 대학생 학생증 사본
※ 작품 사진 미 부착, 작품 제목, 설명 및 규격 미기재, 주소 및 연락처 미기재 등 소정양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원서 제출자의 작품은 추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원서 및 작품설명서를 충실하게 기재해주세요.

원서 배부 및 작품 접수
- 공모 요강 및 원서 :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6월부터 확인 및 출력.
- 접수 기간 : 10월 7일(수)~8일(목)
-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접수 장소 : 관문사 2층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접수 계좌
- 작품 접수비는 계좌로만 수납 접수. 현금 수납 불가.
- 출품자와 출품료 입금자 명의 동일.
- 10월 8일까지 이체된 접수비에 한해 접수 완료.
- 계좌 번호 : 신한은행 100-030-083607 예금주 대한불교천태종

작품 반출
- 낙선작은 심사 발표 후 일주일 이내에 출품자 본인 및 대리인의 접수증 확인 후 회수. 일정 추후 공지.
- 입상작은 12월 1일 오전 10시 반부터 정오 사이 전시장에서 본인 및 대리인(접수증 확인)이 반출.

심사 발표 금강신문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통보

시상식 및 전시
시상식 일정 추후 공지.
전시 - 11월 25~30일 서울 관훈동 동덕아트갤러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51-8 동덕빌딩 지하 1층

자세한 사항은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확인 바랍니다.